

# 익산보물찾기 축제 제품 기탁

귀금속업체, 5000만원 상당… 지난해 20개서 올해 37개로 85% 확대

익산 보석문화산업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익산보물찾기' 축제 성공개최를 위해 지역 귀금속업체들이 힘을 모았다.

보석도시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보석 문화산업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그 일환으로 진행되는 축제에 후원 귀금속 업체들이 지난해에 비해 85% 늘어나며 축제 성공에 힘을 받고 있다.

익산시와 익산문화도시지원센터는 오는 9월 1일부터 3일까지 개최되는 제2회 익산 보물찾기 축제'를 위해 37개 귀금속업체가 5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열린 기탁식에는 정현율 익산시장, 한국산업단지공단 익산지사 박덕경 이사장,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원, 보물찾기축제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기탁업체 37개 업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탁식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원, 기탁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탁식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이번에 기탁된 물품은 디아몬드, 골드바, 18k금, 은 등 다양한 주얼리 귀금속 제품 2,117점이다. 이 제품들은 AR보물찾기, 보석RPG 추리게임, 스템 프루트 등 축제 프로그램 상품으로 방문객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올해는 기탁에 참여한 업체가 작년 20개에서 37개 업체로 확대되며, 보물찾기 축제가 익산 보석산업의 부흥을 이끌어줄 것을 기대하는 업체들의 바람을 염원할 수 있었다.

기탁자 중 한 명은 "작년 보물찾기 축제 이후 공단이 조금씩 활력을 찾고 있다"며 "익산의 귀금속 종사자들이 보물찾기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마음으로 응원하는 차원에서 제품을 기탁한 만큼 많은 분들이 즐기는 축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현율 시장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오늘 이 자리 통해 보석이 산업을 넘어 보석문화 콘텐츠로 익산 관광의 한 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2회 AR보물찾기 진짜축제'는 익산귀금속보석공업단지와 보석박물관 광장에서 개최되며 귀금속업체 대표와 종사자 27명으로 구성된 축진 위원회(위원장 김영수)에서 귀금속 전시, 체험 플리마켓, 홍보 대외협력 등 축제 전반을 이끌고 있다.

/익산=이재준기자



군산시민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가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 '폭염보다 뜨거운 새만금 사랑'

군산시민단체, 정부세종청사 앞 새만금 관할권 사수 집회

군산시민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가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군산시민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는 군산시의 새만금 관할권에 대한 합리적인 결정을 촉구하기 위해 다수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조직이다.

1,200여 명이 모인 이번 집회에서는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에 앞서, 군산시의 논의가 뒷받침된 충분한 논의가 우선시되어야 하며 개별사업이 완료될 때마다 이렇게 지역 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와 결의문 낭독, 구호 제창, 10만 범시민 서명부 전달 등 맹목적인 관할권 분쟁이 아닌 새만금 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한 집회를 보여졌다.

집회를 주관한 군산시민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 아래별 공동위원장은 "새만금이 큰 위기에 직면해 있는 지금, /군산=김판곤 기자

지방자치단체 관할권 결정의 키를 주고 있는 행정안전부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어느 때보다도 신중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정이 필요한 때이다"라고 말했다.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장도 "군산·김제·부안 등 3개 시군 간 협치를 꼭 꾸려 새만금의 청사진을 반드시 이행 할 것"이라며 "군산시의회에서는 군산 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를 모든 노력을 총동원하여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강임준 군산시장은 새만금의 신속한 발전을 위해 모인 시민들에게 "군산시민들께서 새만금 발전을 위해 앞장서 주시고 뜻을 하나로 모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군산시에서도 새만금 관할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죄송함과 감사를 표하였다. /군산=김판곤 기자

## 정현율 익산시장, 35사단 장병들에 감사 인사

피해 복구지역인 망성·용안·용동면 주민도 함께 방문

익산시 정현율 시장은 대규모 수해 복구 작업을 펼친 제35보병사단 장병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특히 7월 17일부터 16일간 긴급 수해 복구 작업에 참여한 군 장병들의 현신으로 빠르게 일상 회복중인 망성·용안·용동면 주민도 함께 방문해 그 의미가 더욱 뜻깊었다.

지난 18일 정 시장과 주민들은 지역 방위시단인 제35보병사단을 방문해 군

장병들에 대한 격려와 감사회를 표했다.

이날 제35보병사단 김범수실에서 진행된 방문 일정은 오현재 사단장의 환영사, 정현율 익산시장의 감사 인사로 시작되었고 장병들의 현신이 담긴 등

영상 상영, 환담, 사단장에 대한 정시 장과 주민들에게 준비한 감사패 전달, 군 장병에 대한 표창 및 위문품 전달로 진행됐다.

/익산=이재준기자

## 군산체력인증센터, 장애인 체력측정·운동처방 서비스 '호평'

군산시는 군산체력인증센터가 '장애인 체력증진의 날'을 맞아 진행한 장애인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프로그램이 참여자들에게 호평을 받았으며 마무리 리됐다.

18일 장애인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장애인 체력증진의 날' 행사는 장애인의 체력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추진됐으며, 200명이 넘는 장애인에게 체력측정과 개별맞춤 운동처방 서비스를 제공했다.

프로그램은 군산체력인증센터의 전문 운동처방사와 함께 국민체력100 성인기(만 19~64세)에 해당하는 7가지

체방을 실시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은 "이번 행사에 참여하여 체력측정은 물론, 나에게 맞는 개별 맞춤 운동처방까지 받아 매우 좋았다"며,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장애인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프로그램에 많은 참여와 관심 가져주신 덕분에 안전사고 없이 성황리에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장애인 체력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행복(신체조성, 심폐지구력,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민첩성, 순발력)의 체력측정과 운동처방을 진행했다.

특히, 체력측정이 제한되거나 어려운 인원에게도 체성분분석과 기초체력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맞춤 운동

수강료는 강좌 기간 및 시간에 따라

## 군산시 여성사회대학 하반기 프로그램 운영

군산시 여성사회대학은 시민들의 자아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하반기 프로그램 수강생을 오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주 2회 1시간 30분 운영하는 강좌(10주)와 주 1회 2시간 30분 강좌(14주)로 구분해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게 되며, 9월부터 12월까지 최대 14주 운영하는 교육과정이다.

강좌로는 직업능력(패션연출업체 등 4개), 정보화교육(실생활컴퓨터 등 3개), 생활문화(생활잡지요리 등 3개), 교양교육(보태니컬아트와 색연필화 등 16개), 아간(통기타연주 등 2개) 분야별 28개의 강좌로 진행된다.

수강료는 강좌 기간 및 시간에 따라

2만 8,000원부터 3만 5,000원까지며, 재료비와 교재비는 별도 자부담으로 운영된다.

온라인 접수는 시청 홈페이지 통합 예약시스템을 통해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31일 오후 5시까지 가능하고

방문 접수는 오는 9월 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공설시장 3층 여성 교육장에서 접수한다.

체육영 여성기족청소년과장은 "시민

들이 배움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강좌를 마련하고자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라며 "하반기 강좌에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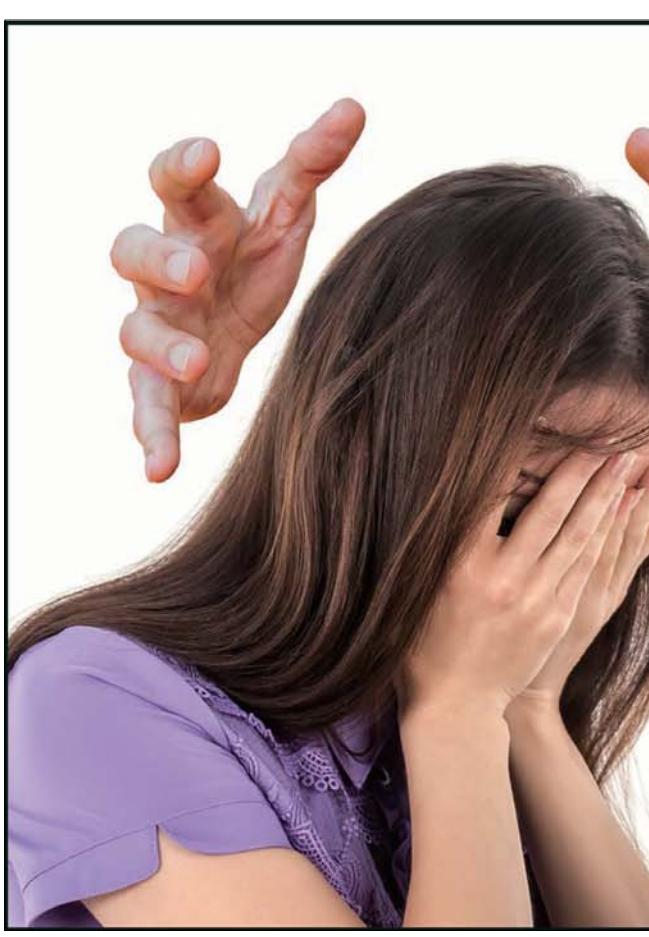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



## 지역 소식통

군산시,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교육 실시

군산시는 18일 새롭게 보급한 휴대용 보호장비 관련지침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시청 민원전당부서 및 읍·면·동 민원 담당자 60여명을 대상으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 발생 시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민원인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보급한 휴대용 보호장비(웨어러블 캠)의 사용 지침, 개인정보 보호 지침, 사용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 장비인 웨어러블 캠은 목걸이 형태의 카메라로 촉용과 사용이 간편하고 사각지대 없이 근거리 활영과 녹음이 가능하다. 웨어러블 캠이 영상 활영 장비인 만큼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어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에 따라 사전에 사용법 및 개인정보 관련 주의사항 등에 대한 안내 교육이 마련됐다.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폭언과 폭행 피해를 당한 사례가 있어,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특이상황 발생 시 활용할 예정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 군산시치매안심센터, 노인 통합지원센터와 협약 체결

군산시치매안심센터는 18일 유기적인 치매관리 협력체계 구축 및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노인 및 출형 돌봄 서비스 사업 기관인 동부시군 노인통합지원센터, 함께하는재기노인통합지원센터 2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7월 보은재기노인통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이번 협약 체결로 관내 모든 권리 노인통합지원센터와 치매관리 업무협약을 완료했다.

이번 협약은 각 기관의 전문성 및 다양화된 정보 교류를 통한 지속적인 상호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으로 군산시민에게 더욱 효과적인 치매극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치매피트너 및 치매극복 활동 참여, △치매환자 벌금 및 치매조기검진,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연계 등이다. /군산=김판곤 기자